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10월 9일(금)
...(음력 8월 23일)..
Пятница
9 октября 2020г.
№ 40 (116907)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0월 9일은 한글날이다.
사할린한국교육원(원장 이병일) 한국어수업 시간.

(배순신 기자 촬영)

사할린주, 가을방학 2주 앞당겨

사할린주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발생률 증가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을 방학을 2주 앞당기게 되었다. 방학이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라고 지난 5일(월) 주정부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기자회견에 사할린주정부 블라디미르 유슈크 부수상, 러시아 소비자권리 보호감독청 사할린관리국 올가 푼투수와 국장, 사할린주교육부 아나스타시아 키크테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이번 주 안으로 주보건부와 러시아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 사할린관리국이 방학 이후 교육기관들의 교육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고 밝힐 예정이다. 이 조치중 하나로는 원격 수업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에 의하면 추후 모든 조치들이 1학기 교육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코비드19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사할린에서 환자발생율이 크게 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에게 시간적 제한에 대하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바이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받을 가능성이 크니 고용주들은 이런 학부모들이 자택 근무를 하도록 배려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블라디미르 유슈크 사할린 부수상이 전했다.

문화·체육 행사 참가 인원 제한이 다시 실시된다. 실내 공간에서는 50명 이상 모일 수 없으며, 야외 대중 행사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야 행사가 허용된다.

65세 이상의 사할린 주민들은 스스로 집을 나가지 않도록 권고한다. 이들은 의

사의 판단이 있을 경우에만 병원을 방문할 수 있다.

사할린과 쿠릴에서 마스크 체제가 계속 운영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쇼핑 센터, 상점, 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때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착용과 관련해 매점과 서비스 분야 기관에서 계속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시 벌금이 부과된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황금 수칙이 있다. 첫 번째는 마스크다. 마스크는 보호막이다. 또한 마스크는 2~3시간마다 바꿔야 한다. 둘째, 손을 항상 씻어야 한다. 셋째, 소독제를 사용한다. 또 다른 규칙으로는 출입시의 통제, 온도 측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염 원인 물질이 표면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참을성을 가지고 스스로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러시아 소비자 권리보호청 사할린 관리국 국장 올가 푼투소와가 전했다.

또한 10월 5일 현재 사할린주 18개 학교 29개 클래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1~2건씩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반 학생들은 원격으로 수업을 받게 되고 다른 반 학생들은 학교 소독후 계속 학교내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또한 브리핑에서 사할린 지역 입도에 관한 규정도 상기시켰다. 사할린주내 거주등록증이 없는 경우 방문객은 홈페이지(dp.sakhalin.gov.ru)에서 사전에 디지털 패스를 발급하고 코로나바이러스 음성확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해당 규칙은 사할린주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화부 차관, 유즈노사할린스크 방문

막심 크센조브 러시아 연방 문화부 차관은 지난 7일(수) 사할린주지사 산하 영화진흥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막심 문화부 차관은 "지난 몇 년간의 사할린 문화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걸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포베다(승리)>박물관을 방문했는데, 여타 지역 박물관들보다 수준이 훨씬 높아 많이 놀랐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최선을 다 하고 마음을 담아 일하는 것이 보인다. 사할린 사람들은 이곳에서 열리는 영화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 지역의 문화 분야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해보겠다."라고 이번 출장 소감을 전했다.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은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사변의 중심, 문화생활의 중심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 창설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미디어 자원 확보를 위해 러시아 및 외국 기업을 유치하며 영화 분야의 교육 활동 및 조직에 힘을 것이라고 사할린주정부 정보정책국이 전했다.

새고려신문

2021년 상반기 신문 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551루블리 10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단신

사할린주미술박물관, 김지연 한국 사진작가 개인전 열려

오는 10월 13(화) 17시 30분 사할린주미술박물관에서 김지연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의 <역사의 얼굴>전시회가 열린다.

프랑스 국립예술대학과 이화여대 대학원을 졸업한 김지연 작가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서 인권과 재외동포 역사와 관련된 주제에 관심이 많다. 그는 민족의 이산, 디아스포라 문제를 큰 카테고리로 중국의 조선족, 러시아의 고려인, 사할린의 한인들, 일본의 조선학교 등 흩어져 있는 우리민족에 관해 20여 년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지연 작가는 KIN(재외동포연대)의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전달 방문단원으로 여러 차례 사할린을 방문했고 한국에서 <사할린 한인>사진집을 낸 바가 있다.

김지연 작가의 개인전은 10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열린다.

아.레메조브, 연방 정부 산하 사할린주 대표부 지도자로 임명

알렉산드르 레메조브는 레닌명칭 이아노브 동력대학(화력발전 전공)과 췌자 국립기술대학교(경제 및 기업 경영학 전공)를 졸업했다. 기술공학 준박사이며 한때 모스크바동력대학 전력발전소 학과장이었다.

그는 1976년부터 경력을 쌓아왔다. 2003년에는 모스크바 시행정부 연료 및 에너지 관리국 국장으로 부임하였고 최근에는 건설분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재즈 페스티벌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 영화관 <옥짜브리>의 무대에서 사할린 재즈 음악제가 열린다.

10월 13일에는 러시아 재즈의 전설, 유명한 색소폰 연주자, 국가상 수상자, 러시아 국민 아티스트 이고르 부트만 등 이름난 음악가들의 공연으로 개막한다.

사할린 주, 코로나 19 감염 확진자 6천여명

사할린 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신규 감염 환자가 7일 하루에 58건 발생하였다. 63명이 치료받고 퇴원하였다.

사할린 지역에서 총 6,031건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하였고, 10월 7일 현재 4,258명이 회복하여 퇴원했으며, 1,77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사할린 보도국에서 전했다.

알립니다!

2020년 하반기 발행표에 따라 새고려신문 다음 호는 2020년 10월 23일에 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본사 편집부**

Согласно графику выхода газеты следующий номер выйдет 23 октября 2020 г.

10월 9일은 한글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효과적인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 늘 고민

사할린국립대학교 어문, 역사 및 동양학대학 학장 임 엘비라 한국어교사와의 인터뷰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본사 배순신 기자는 사할린국립대 어문, 역사 및 동양학대학 학장 임 엘비라 한국어교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터뷰는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 인터뷰하는 날이 국제 교사의 날이군요. 또 한글날을 맞이 이 인터뷰를 계획했는데 이 두 명절을 축하드립니다. 교수님께 한국어란 무엇인가요?

- 한국어를 23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저에게 갑작스러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어는 제 직업이자 모국어이며 취미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전공한데 대해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어를 아니까 한국문화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직접 찾아볼 수 있고 한반도 뉴스나 새로운 정보를 바로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한국어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설명이 가능하니까 도와드릴 때가 많습니다.

-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요? 무엇이 기쁨을 안겨줍니까?

- 어렵다기 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효과적인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 늘 고민입니다. 같은 어휘나 문법을 가르치면서도 각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교수의

실력입니다. 학생들이 매년 다르고 또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강의를 한 상황이라서 남다른 경험이었습니 다. 하지만 학생들이 한국어 실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우리 제자들이 잘 성장하는 것을 보면 더 바랄 것이 없죠.

- 올해 신입생들은 한국어를 어느 과에서 배우고 있습니까?

- 최근 몇년간 한국어과의 신입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두 전공의 신입생들을 뽑았는데 한국학 14명과 한국어교육학 19명입니다. 현재 한국어는 제2 외국어로 관광과에서도 배우고 있고 초등교육학을 전공하는 학생도 한국어를 익히고 있습니다.

- 약 20여년 교수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20년전 학생과 현 학생들을 비교한다면?

- 학생들은 늘 같습니다. 기대가 크고 꿈이 많고 활기칩니다. 젊은 친구들과 매일 만나는 직업이라 항상 에너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다만, 20년전에는 한국어과 학생이면 대부분 한인들이었는데, 현재는 러시아인이 아주 많아요. 전에 동포학생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또는 부모님의 한을 풀기 위해 모국어를 배우러 왔는데, 현재 러시아인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한국어과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젊은 한인들은 요즘 스스로 한국에 나가서 교육 과정을



학력: 사할린국립대학교 한국어과 1996년 졸업, 모스크바 사범대학교 박사과정, 교육학 박사
경력: 사할린국립대학교 1997년부터 현재까지 근무 (조교수, 교수, 한국어학과장, 어문, 역사 및 동양학 대학 학장이며 동양어과 학과장)

을 찾아 어학연수나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 코로나 19 팬데믹은 대학교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 비대면 강의를 하는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 다. 미리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고 해서 배우면서 가르쳤습니 다. 힘들었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기술을 배우고 성공적으로 졸업시험도 진행할 수 있었고 졸업시킬 수 있었습니 다.

그리고 매년 4월에 우리 대학이 사할린한인협회와 공동으로 하는 한국문화 경시대회를 올해는 온라인으

로 개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했으니 보다 더 많은 지방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약 160명이 참가했거든요. 주최자로서 좋았습니다.

- 올해 러·한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 대학에서 어떤 행사를 계획했는지요?

- 한글날을 맞아 10월 9일에 사할린국립대학에서 러-한 수교 30주년 기념으로 사할린주 한국어 말하기대회를 개최하는데 행사는 사할린주정부,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사할린국립대 주최로 진행됩니다. 이미 참가신청 32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러-한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할린 한국어 교육 방안 모색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최는 사할린국립대학교 한국어과, 사할린한국교육원입니다. 참여대상은 한국어 교사와 교수, 한국어과 대학생이고 다양한 주제발표가 준비되었습니다.

- 교수님께서 사할린주한인 협회 부회장(문화 및 한국어 보급 담당)으로 계시는데 올해 이미 어떤 행사를 실시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한 행사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 아시다시피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과 교수와 학생들이 사할린한인 협회와 개최하는 행사가 다양합니다. 2020년 음력설에는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사할린한인청소년회하고 처음으로 어린이아들을 대상으로 하

여 설날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사할린동포(성인)를 위해 열리는 설날 행사와는 전혀 달랐습니 다. 전통 놀이, 한국풍습, 한국어 수수께끼, 한국 음악 등 프로그램이 색달랐습니 다. 열정이 많은 젊은이로 구성된 사할린한인청소년회가 앞으로 이 행사를 맡아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 믿습니 다.

사할린한인청소년역사캠프도 올해 2 차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구요. 학생들은 사할린한인역사와 한민족 전통과 예절을 익혔고 여러 활동교실을 통해 한국 문화, K-pop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어요. 이미 말씀 드렸지만 매년 4월에 사할린한인협회와 하는 한국문화 경시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는데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홈스크, 아니와, 돌린스크, 우글레고르스크, 크라스노고르스크 등 다양한 지방의 160여명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9월 19일에는 홈스크에서 <한 가정에서>민족간 문화 축제, 9월 26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광복절 행사를 진행할 때는 우리 대학 한국어과 교수와 대학생들이 문화 체험장을 준비했습니다. 오는 10월 24일에는 매년 하듯이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장인들의 도시> 한국공예박람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풍성하게 여러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할 일도 많습니다.

- 한글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모 저 모

'카자크 동산' 축제, 사할린에서 개최

아니와 구역 오펜키 마을 인근에서 처음으로 '카자크 동산' 축제가 열렸다. 축제는 사할린주 8개 구역을 대표하는 단체, 크라스노다르 예술가와 지방 관중 등 300여 명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날 행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홈스크 구간 도로 37km 부근 들판에 설치된 무대에서 진행됐다.

축제는 역시 유즈노사할린스크 및 쿠릴 대주교가 주재하는 기도회로 시작되었고 이후 카자크식의 소년이 되는 통과 의례인 말타기 의식이 행해졌다. 풍성한 공연 프로그램에는 사할린 지역 최고의 창작팀들의 카자크 노래와 춤이 포함되었다.

활쏘기, 검, 채찍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오락 공간도 마련됐으며 어린이 놀이 프로그램과 사진 촬영 공간도 마련되었다. 카자크들은 축제 방문객들을 위한 전통 요리 쿨레쉬(죽과 비슷함)를 준비해 풍성한 잔치를 벌였다. 카자크 박람회도 하루 종일 열렸다.

Фестиваль "Казачья горка" состоялся на Сахалине

Фестиваль "Казачья горка" впервые состоялся недалеко от села Огоньки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Он собрал более трехсот человек, включая зрителей, коллективы из 8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и приглашённых артистов из Краснодара.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ялось на сцене, которую установили в поле на 37-м километре автодорог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Холмск. Фестиваль начался с молебна, который возглавил архиепископ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и Курильский Акий. Сразу после был проведён обряд посадки на коня – ритуал посвящения мальчиков в казаки.

Богатая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включала выступления лучших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епертуар которых входят казачьи песни и танцы.

Работали и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площадки: по стрельбе из лука, фланкировке шашкой и нагайкой, с детски-

ми игровыми программами и зоной для фотографирования. Казаки устроили настоящий пир, приготовив на всех традиционное блюдо кулеш. Весь день работала и казачья ярмарка.

10월 10일, "아니와 링" 자전거 경주 개최

자전거 경주 대회 "아니와 링"이 10월 10일 개최된다.

18세 이상, 누구나 자전거 종류에 상관없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유일한 요구 사항은 보호 헬멧을 꼭 착용하는 것이다.

경기는 남성 18~39세(63km 코스), 남성 40~54세(63km 코스), 남성 55~64세(63km 코스), 남성 65세 이상(42km코스), 남성 전연령대(105km 코스), 여성 18~39세 (63km 코스), 여성 40~64세(63km 코스), 여성 65세 이상(42km 코스) 등 남성 5개 그룹, 여성 3개 그룹으로 진행된다.

경주 트랙은 다음과 같다. 아니와 광장-블라고베센스코예 - "아르테크"- 페트로파블롭스코예 마을 근처 교통 경찰 초소 - 위스크레센스코예 마을 - 아니와 광장이다. 한 코스는 21km로 경주코스에 따라 행사 참가자들이 해당 코스를 2번 혹은 5번까지 달려야 한다.

대회 참가를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대회는 10월 10일 10시에 시작된다. 아니와 구역 행정부에 따르면 같은 날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참가 번호를 발행한다고 한다.

10 октября состоится велогонка "Анивское кольцо"

Велогонка "Анивское кольцо" состоится 10 октября.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се желающие в возрасте 18 лет и старше на велосипедах любого типа. Единственное требование – спортсмен должен быть в защитном шлеме.

Велогонка пройдёт в пяти мужских группах и трёх женских: мужчины 18-39 лет (дистанция 63 км), мужчины 40-54 года (63 км), мужчины 55-64 года (63 км), женщины 65 лет и старше (42 км), мужчины всех возрастов (105 км), женщины 18-39 лет (63 км), женщины 40-64 года (63

км) и женщины 65 лет и старше (дистанция 42 км).

Трасса заезда будет пролегать по маршруту: городская площадь Анивы – Благовещенское – о/з "Артек" – пост ГИБДД село Петропавловское – село Воскресенское – городская площадь Анивы. Один круг – 21 километр.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дистанции велогонщикам необходимо будет проехать от двух до пяти таких кругов.

Необходима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регистрация на участие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Начало соревнований в 10:00 10 октября. Выдача номеров с 8:30 до 9:30 в этот же день, сообщает анив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사할린 연금자, "인터넷 ABC" 신규 과정 익혀

사할린과 쿠릴의 연금수급자들이 익힐 수 있는 <인터넷 ABC> 프로그램의 새로운 과정 '휴양과 여행을 위한 인터넷: 편리하고 유용한 권고'가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러시아 연금 공단 사할린지부의 보고가 있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휴가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철도 및 항공권을 구입하는 가장 편리하고 인기 있는 방법, 정확하고 안전하게 호텔을 예약하는 방법, 그리고 낯선 도시로의 여행 티켓, 극장 또는 박물관 티켓 발급에 대해 배울 수 있다.

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이미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춘 고령의 사용자들이 쉽게 익힐 수 있는 부가교육 프로그램이다.

사할린 주에서는 수십 년 동안 시민들에게 컴퓨터 관련 지식들을 교육해 왔다. 예를 들어 주일반 과학도서관에서는 1993년부터 이러한 강좌가 열리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사할린연금자 교육을 '인터넷ABC'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인터넷의 ABC' 코스를 익히거나 습득한 기술을 더 익히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사이트 <https://азбукаинтернета.рф/>가 있는데 기본 교과서의 전자 버전, 연장 과정의 모든 강의, 고령의 사용자들이 새로운 주제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다.

(8면에 계속)

러·한 수교 30주년 맞아 <아리랑>소공원 착공

지난 2일(금) 오후 3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앞에 앞으로 조성할 <아리랑>소공원 착공식으로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러·한 수교 30주년 기념행사인 만큼 사할린주정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사할린주한인협회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행사에는 주한인여성회, 주한인청년회 대표들도 참석했다.

이날 사전 공연으로 <아리랑>무용단(단장 박영자)의 공연이 있는 후 귀빈들의 인사가 있었다.

사할린주정부 행정실 블라지슬라브 예피파노브 제1부실장은 "오늘 좋은 일 한다고 해서 맑게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중요한 행사가 많습니다. 대조국전쟁 전승 75주년, 2차세계대전 종전 75주년, 그리고 광복 75주년입니다. 또한 러·한 수교 30주년 맞는데 양국간 공식 수교가 중요하지만 민간외교도 아주 중요하다 봅니다. 이에는 박순옥 회장이 이끄는 사할린주한인협회가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협회는 강력한 단체라고 강조하고 싶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심은 나무가 앞으로 잘 자라고 러시아와 한국 교류도 확대할 것을 기원합니다."라고 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부시장 알렉세이 프리주크는 "30년전에 한러 관계가 수립된 것은 전체적으로 뜻 깊은 일입니다. 특히 우리 섬에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니 이 역사적 사건이 더더욱 중요하다 봅니다. 오늘 심을 나무는 평화속에 자랄 것을 굳게 믿고 러한 우호관계도 더더욱 강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라고 언급했다.

주유즈노사할린스크영사출장소 광기동 소장은 "이 공원 이름은 한국을 그리워하던 우리 1세 동포 어르신들의 마음을 담아 아리랑 공원이라고 지었습니다.

1세 동포들의 고국을 그리는 마음과 함께 또한 사할린, 특히 사할린 한인문화센터는 사할린 2세, 3세 동포들에게 마음의 고향입니다. 사할린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이 다같이 마음을 모으고, 또 이 사할린을 떠나서 큰 땅 본토로 가거나 한국에 갔을 때, 사할린을 그리는 마음. 공기 좋고 물 좋고 자원 많고 인심이 풍부한 이 사할린을 그리워할 때 제일 먼저 이 아리랑 공원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한러수교 30주년을 기념해서 나무를 심게 됩니다.

이 나무와 함께 이 공원에 있는 꽃들과 나무들이 풍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사할린 한인 동포 사회도 더 풍성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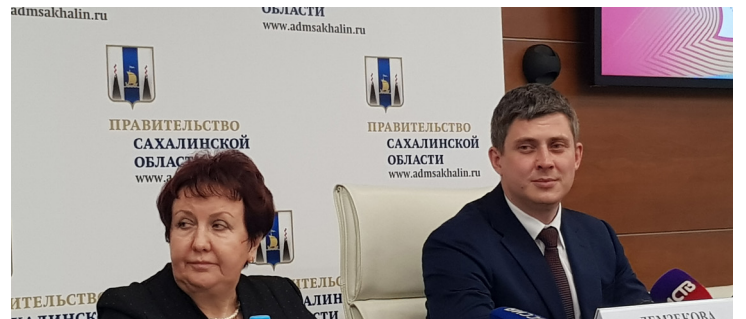
고 단결하고 굳세게 성장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박순옥 주한인협회 회장은 "러한 수교 30주년을 맞아 <아리랑>소공원 조성을 시작하는 것이 상징적 의미가 있고 정말 기쁩니다. 아리랑 소공원 조성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하고 지원하겠다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와 주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이 공원은 앞으로 여러 민족 사람들이 찾아오고 단합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하였다.

인사가 끝난 후에 모두가 나무를 심었다.

(취재: 배순신 기자)

사할린주, 전국 인구조사 진행을 위해 조사원 1200명 모집



올해 10월에 예정됐던 전 러시아 인구조사가 6개월 미뤄졌다. 이 대규모 캠페인의 첫 결과물은 2021년 10월에 발표된다고 지난 2일(금) 주정부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러시아 통계청 파벨 스멜로브 부청장, 사할린주통계국 이리나 램제코와 국장 등이 참가했다.

이전의 인구조사와 이번 인구조사의 차이점은 현대 기술을 대규모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민들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직접 국가서비스 단일 포털에 올릴 수 있다. 또한 다기능센터를 포함하여 인구조사를 위해 준비된 조사장에서도 전자식으로 응할 수 있다. 조사원들도 역시 응답자의 답을 바로 조사자리에서 태블릿 컴퓨터에 옮긴다. 스멜로브 부청장에 따르면 태블릿 컴퓨터는 러시아산이다. 프로그램도 그렇고 부속장비 대다수도 그렇다.

"사할린 지역 주민들은 현 기술을 잘 익혀 나가고 있고 2018년의 예비조사 때도 현 기술을 이용해 인구조사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데이터가 즉시 전자 형식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보다 더 빨리 나올 것입니다"라고 러시아통계청 파벨 스멜로브 부청장이 전했다.

사할린 통계국 이리나 램제코와 국장은 사할린 지역에서 전국 인구조사 준비는 약 80%가 진행되었다고 언급했다. 2021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는 인구조사 기간 동안 사할린에서 임시 조사원으로 약 12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 조사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램제코와 국장은 또한 인구조사때 민족 사항도 조사할 계획인데 다문화로 이루어진 사할린주에는 대규모 디아스포라가 5개 정도 있다고 했다. 주통계국에서 이들과 밀접하게 작업할 계획이다. 사할린통계국 국장은 민족사항에 대한 정보는 인구조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0년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사할린주에는 민족 인구수로 볼 때 가장 많은 인구는 러시아인이 차지하고 한인이 2번째 자리에 있었다.

(본사 기자)

희생 동포들의 영을 위로하며

지난 5일(월) 오전 10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와 사할린 동포 희생자 위령비와 사할린한인 이종징용 광부피해자 추모비 앞에서 사할린 동포 희생자 추모 행사가 진행되었다. 1993년 위령비 건립부터 현재까지 해외희생동포추념사업회(회장 이용택, 한국)가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사할린주한인노인회와 주한인협회가 주관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에서 방문하지 못한 상태라서 이 행사를 주노인회와 주한인협회가 진행하기로 했다.

김종길 주노인회장은 행사에 참석한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주유즈노사할린스크영사출장소 광기동 소장, 사할린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 사할린주한인회 김홍지 고문, 사할린한인여성회 김웨철 회장 등을 소개하고 추모제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 주한인협회, 여성회,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등 회원과 시민 여러분 20여명이 참가했다. 사할린 한인 1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한 행사는 비 때문에 빠르고 간단하게 치러졌다. 헌화하고 제삿상에 잔을 올리고 고개 숙여 반절을 한후 음복을 하였다.

오후 2시반에는 같은 행사가 포자르스코예(미주호) 27인한인피살자 추모비 앞에서도 진행되었다. 주한인협회와 홈스크시 행정부와 체결한 협력협정서에 따라 이 추모비 현장은 공식적으로 홈스크시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주한인협회 측에서도 계속 정돈작업을 한다. 이번에 주두마 아르쎌프 크루글리크 의원의 지원하에 추모비 현장에 안내석판을 설치했다. 거기에는 러어와 한글로 다음과 같이 새겼다.

"고인들의 영이 안식을 찾아 이 땅에 영원한 평화와 우정이 회복되기 위해 기도하기를 기원합니다" 미주호 비석은 1945년 8월 20-23일에 미주호 마을에서 일본인들이 같은 마을 (현대 포자르스코예 마을 부근)에 사는 한인 27명을 학살한 곳에 세

운 비석입니다."

이곳 추모행사에는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광기동 소장이 초대되고 홈스크시행정부, 홈스크 한인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 진행은 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에서 맡았다.

(취재: 배순신 기자)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ласти Сеула запретят 9 октября все ул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9 октября, когда будет отмечаться День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Хангиль, власти Сеула запретят проведение всех ул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с целью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COVID-19. Запрет на митинги с участием 10 и более человек был введён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осле та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состоявшихся 15 августа, был отмечен рост числа заражённых вирусом. Запрет действует до конца суток 11 октября. Как сообщил в понедельник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эрии Сеула, на 9 октября запланированы 52 митинга с участием 10 или более человек. 3 октября, когда отмечался День основания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район площади Кванхвамун был перекрыт полицией, а ближайшие станции метро были закрыты для выхода пассажиров.

Лидер КНДР объявил «80-дневный бой»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объявил «80-дневный бой», чтобы до конца года сделать мощный рывок для достиж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других целей. Как сообщили во вторни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МИ, Ким Чен Ын провёл накануне заседание Политбюро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На заседании в качестве первого пункта повестки дня обсуждался вопрос об успешной подготовке к восьмому съезду партии путём проведения динамичного 80-дневного боя с участием всей партии, всей страны и всего народа»,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агентства ЦТАК. Кроме того, на пленуме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прославить 75-ю годовщину основания партии», которая будет отмечаться 10 октября, как «великий праздник победы и прогресса, с гордостью завершить борьбу этого года в приподнятом настроении и встретить VIII съезд партии с большим политическим энтузиазмом и трудовыми подвигами»,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Ранее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провести VIII съезд ТПК в январе будущего года.

С 17 октября прекращается выдача брачных виз F-6 без выезда из страны

С 17 октября иностранные супруги южнокорейцев, находящиеся в РК по краткосрочным визам, не с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на получение визы для брачных мигрантов без выезда из страны.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5 октябр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юстиции. С 12 апреля супругам-иностранцам, которые въехали в РК в рамках безвизового режима и по краткосрочным визам, было временно разрешено получать визы для брачных мигрантов F-6 без выезда из страны из-за прекращения авиасообщения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COVID-19. Сейчас ситуация постепенно нормализуется. Тем, кто не может выехать из РК после истечения срока действия визы по причинам, связанным с COVID-19, может быть предоставлено продление их краткосроч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добав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Naver выплатит штраф за манипулирование алгоритмами

Комиссия по добросовестной конкуренции РК обвинила во вторник крупнейшую в стране поисковую систему Naver в манипулировании поисковыми алгоритмами в пользу своего интернет-магазина. Её владельцам придётся выплатить штраф в размере 26 млрд 700 млн вон (23 млн долларов). Это первый в стране случай, когда регулирующий орган оштрафовал оператора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платформы за внесение алгоритмических изменений в пользу определённого бизнеса.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в феврале 2012 года, за два месяца до того, как Naver запустил собственный сервис онлайн-покупок, манипуляции поисковыми алгоритмами снизили рейтинг товаров, продаваемых конкурентами, такими как Gmarket и Interpark. В период с 2012 по 2015 год изменения в алгоритмы вносились как минимум шесть раз. Naver также изменил свои алгоритмы, чтобы отображать больше результатов поиска товаров и услуг, когда они связаны с платёжным сервисом Naver Pay. Ожидается, что обвинение подорвёт довер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к услугам Naver, включая поиск, покупки и новости.

С 8 октября РК и Япония вводят упрощённую процедуру взаимных поездок

С 8 октября южнокорейск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будут освобождены от карантина во время делового посещения Японии. Такая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Сеула и Токио 6 октября. При прибытии в Японию на короткий срок южнокорейск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должны будут предоставить справку об отрицательном результате теста на COVID-19 и в течение двух недель использовать специальный транспорт, тщательно следуя мерам профилактики, установленным сторонами. При долгосрочной поездке предписывается помещение под двухнедельный домашний карантин. Безвизовый режим пока не восстановлен.

(RKI)

Чего достигли Россия и Южная Корея за 30 лет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Ровно три десятка лет назад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ССР Эдуард Шеварднадзе обсуждал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 коллегой вопрос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ССР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РК). Обе страны уже достаточно давно вели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ую работу к этому шагу. В СССР царили "гласность, перестройка и новое мышление",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езидент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л так называемую "северную политику", подразумевающую развитие связей со странами соцлагер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 Советским Союзом.

По итогам переговоров двух министров было решено официально установить дипотношения с начала нового года, то есть с 1 января 1991 г. Казалось бы, логично: Новый год – новое начало. Но затем Шеварднадзе предложил корейцу: "А чего нам откладывать? Давайте прямо сейчас!" Южнокорейский коллега проконсультировался с Сеулом и согласился. На оригинал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соглашения вычеркнута дата 1 января 1991 г. и от руки написано "30 сентября 1990 г." В итоге, 30 сентября 1990 года стало датой официального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Ф (бывшим СССР)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С тех пор прошло ровно тридцать лет. Родившиеся в 1990 году люди уже стали взрослыми, обзавелись семьями, но многие главные события жизни у нынешних 30-летних мужчин и женщин еще впереди.

Так, пожалуй, можно сказать и про отношения Росс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Мы – россияне и корейцы - безусловно гораздо лучше узнали друг друга, по ряду направлений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меются значительные успехи и достижения, но в то же время сделать еще надо очень многое, чтоб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ерестать быть друг для друга в чем-то "экзотикой" – "загадочной восточной Кореей" и Россией, которую корейцу "сердцем понять" удастся не всегда с первого раза.

Мы ближе, чем можно считать

На самом деле, конечно, история отношений России и Кореи отнюдь не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ремя десятками лет. Российская империя и Королевство Корея подписали договор о дружбе и торговле 7 июля 1884 г., но и задолго до эт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вух стран вступали в контакты.

Наши две страны связывает гораздо больше, чем принято считать. Кофе, гостиницы, театры западного типа – со всем этим познакомила корейцев госпожа Зонтаг, сестра жены первого посланника России в Сеуле. Корейский император Коджон в течение года в 1896-1897 гг. скрывался в российской миссии в Сеуле, опасаясь за свою жизнь.

"Врагу не сдавался наш гордый "Варяг" в бухте Чемульпо, современного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Инчхона, рядом с которым расположен главный аэропорт Южной Кореи. Место гибели легендарного российского крейсера можно видеть каждый раз, когда самолет заходит на посадку в Инчхонском аэропорту. Кстати, корейцы согласились установить памятник в честь подвига крейсера "Варяг" и канонерской лодки "Кореец" в Инчхоне, назвав одну из площадей на набережной "площадью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А в самом центре Сеула, у гостиницы "Лотте", стоит памятник поэту Александру Сергеевичу Пушкину, хотя многие проходят мимо, не зная, что это за монумент и почему он там появился.

В общем, истори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связей гораздо глубже, чем можно подумать, увидев слова о "30-летнем юбилее дипотношений".

Успехи

Вместе с тем, оккупация Кореи Японией, а затем раз-

дел мира на советский и американский лагерь, развели СССР и РК по разные стороны на многие десятки лет. Потому в 1990 г. нам пришлось знакомиться заново.

Безусловно, за это время пройден немалый путь, проделана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Мы стали гораздо лучше знать друг друга. Пожалуй, уже единицы россиян путают Южную Корею с Северной и не так много корейцев, разве что пожилые, по привычке называют Россию "Сорён", что по-корейски означает "СССР". И если в 1990-х корейцы долго прислушивались к русской речи и не могли понять, что это за язык, то теперь сразу говорят: "А, вы из России, верно?"

Российская молодежь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слушает корейскую поп-музыку K-POP,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пользуются корейские сериалы, фильмы. Пожалуй, в хозяйстве каждого россиянина найдется "кореец", а скорее всего и не один - компьютеры, пылесосы, телевизоры, смартфоны, автомобили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со штампом "Сделано в Корее".

Мы активно внедряем опыт и комплексные решения Южной Кореи по части развития и применения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 самых разных сферах – транспорте, электрон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финансах и других.

За плечами ряд совместных успешных проектов, включая запуск Южной Кореей ракеты-носителя KSLV-1 со спутником, что было реализовано при прямой помощи со стороны российских инженеров.

С 2014 года в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ях действует режим безвизового посещения при туристических и деловых поездках, что привело к росту туризма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озволило нашим народам лучше узнать друг друга, дав возможность часто бывать в гостях и видеть всё своими глазами. Тот же Владивосток стал очень популярным для молодых корейцев направлением туризма. Да, коронавирус внес свои коррективы, но это лишь вынужденный откат, который не изменит общей тенденции – нам понравилось ездить в гости друг к другу.

Безусловно, за три десятка лет были разные моменты в политике, в том числе и не самые приятные ситуации. Но надо отдать должное как Москве, так и Сеулу, что, как правило, все потенциальные скандалы и ссоры решались без "бития посуды" и громких перепалок на весь мир. Большинство споров было улажено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 журналисты о них и не узнавали. Если что-то и попадало в СМИ, то обычно утихало достаточно быстро именно из-за стремления политическ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двух стран не концентрироваться на неприятных сторонах, а двигаться дальше, понимая, что в наших обоюдных интересах поддерживать добрососедские отношения.

Интересный опрос: согласно опросам, более 95 процентов россиян положительно относятся к Южной Корее. Это куда выше среднего по миру показателя в 80,3 процента.

Конечно, мы не можем себя назвать союзниками в полно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олитическом смысле этого слова, но обе страны продолжают поддерживать ставшую уже многовековой традицию,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й Россия и Корея друг с другом не воюют. Да, какие-то отдельные инциденты были, когда русские и корейские воины встречались на поле брани, но в тех редких случаях корейцы обычно были "привлечены" более сильными державами, которые тогда политически контролировали Страну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Но Россия никогда не воевала с Кореей. Хочется надеяться, что так будет всегда.

(Окончание на 7-ой странице)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запустили горячую линию по вопросам ЖКХ

Она работает по номеру «8-800-302-00-65». Для мобильных телефонов также действует короткий номер «*0065». Звонки принимаются в любое время. С помощью нового сервиса жители могут сообщать о неполадках водо-, тепло- и электроснабжения. Также можно оставить обращения, связанные с работой управляющих компаний, которые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в течение суток.

Особенности работы нового сервиса обсудили на совещании в област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Звонки и живое общение с оператором — хорошо. Но предлагаю добавить также возможность отправлять по данному номеру текстовые сообщения. Для некоторых людей это будет удобнее. Еще один плюс — специалисты сервиса смогут экономить время. А если из сообщения что-нибудь останется неясным, всегда можно перезвонить и уточнить информацию,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дна из задач оператора линии — обеспечить обратную связь с обратившимися и проинформировать его по интересующему вопросу. В частности, с помощью сервиса жителям будут сообщать об аварийных и плановых отключениях водо-, тепло- и электроснабжения.

Напомним, в июл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еще с семью регионами страны подключилась к федеральной системе мониторинга в сфере ЖКХ. Это позволяет круглосуточно собирать данные о коммунальных авариях и организовывать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между службами для их устранения.

В перспективе систему планируют усилить. Уже сейчас Сахалинский центр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прорабатывает вопрос интеграции АПК «Безопасный город» с новой федеральной системой мониторинг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ервой в России досрочно завершит программу переселения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Речь идет о жилфонде, признанном непригодным до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Федер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рассчитана до 2025 год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её планируют завершить на 4 года раньш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соглашение 5 октября подписал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гендиректор Фонда содействия реформированию ЖКХ Константин Цицин. Также вопрос стал ключевым на рабочем совещани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Открывая совещание, председатель наблюдательно-го совета Фонда содействия реформированию ЖКХ Сергей Степашин особо отметил, что программа по переселению граждан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была инициирована Президентом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ускорить темпы и завершить работу в начале 2024 года. Но Сахалин решил пойти дальше и закрыть вопрос уж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 Это очень своевременно и позволит быстрее переселить людей. Мы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которое поддержал вице-премьер Марат Хуснуллин, министерств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му субъекты, досрочно завершившие выполнение программы, будут получ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редства на переселение граждан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признанного таковым после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Жде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закона, проект уже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е, — отметил Сергей Степашин.

Расселению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лежит 87,5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аварийного жилфонда, признанного таковым до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Треть этого объема уже расселена. Общий объем аварийного и ветхого жилья в регионе, по оценкам экспертов,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1 миллиона 10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примерно половина уже признана официально. Решать проблему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намерены за счет постоянного увеличения объемов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было построено 33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в этом будет 430 тысяч. На одного проживающего в регионе это 0,8 метра. Именно такая задача поставлена как достижение к 2030 году в целом п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о есть в этом году мы набираем такой темп, что это уже фактически решенная задача, которая поставлена в среднем по России на будущий период, — рас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оценкам специалистов для ликвидации всего аварийного жилого фонда, расположенного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еобходимо более 82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в том числе 15,6 миллиардов на переселение жителей домов, поврежденных в результате нефтегорского землетрясения.

Сергей Степашин отметил важность и правильность решения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взять на себя обязательства по переселению жителей Охи. Кроме того, председатель набсовета Фонда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что будет настаивать на увеличении доли со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Особенно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в предстоящие годы ожидается значительное сокращение доходов в региональной казне.

Также на совещании обсудили темы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и модернизации инженер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Фонда Константин Цицин отметил высокие темпы проведения ремонта МКД в регионе и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собираемости взносов собственников. Кроме того, руководитель Фонда содействия реформированию ЖКХ предложил

региональным властям активнее подавать заявки на со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модернизаци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что позволит сэкономить областные средства.

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на две недели раньше уходят на каникулы

Такое решение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приняли в связи с ростом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ей. Чтобы обезопасить школьников, с 12 по 18 октября пройдут каникулы. Об этом стало известно 5 октября на брифинге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эту неделю региональный минздрав совместно с управлением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работают решение о дальнейшей работ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 том числ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обучения в течение одной недели после каникул. Все эти меры не отразятся на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и первой учебной четверти.

— Сейчас по всей стране наблюдается значительный рост количества заболевших. Мы хотим предотвратить вспышку на островах, поэтому проводим предупредите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сим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 пониманием отнестись к временным ограничениям. И призываем работодателей рассмотр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отправить на удаленную работу тех сотрудников, у кого есть дети — ученики начальных классов, — 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щук.

Возвращаются ограничения по количеству участников культурно-массовых и спор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закрытом помещении запрещается собирать вместе более 50 человек. Массовы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разрешены с условием соблюдения социальной дистанции.

Сахалинцам в возрасте 65+ рекомендовано оставаться дома. В поликлинику следует приходить только по приглашению врача.

Напомним, что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родолжает действовать масочный режим. В торговых центрах, магазинах, на транспорте можно находиться только в масках. По торговым точкам и учреждениям сферы обслуживания пройдут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е рейды. За несоблюдение масочного режима предприятиям грозят штрафы.

— Есть пять золотых правил, которые всем необходимо выполнять, чтобы сохранить свое здоровье. Первое — маска. Это защитный барьер. И менять его нужно каждые два-три часа. Второе — мойте постоянно руки. Третье — используйте средства дезинфекции. Еще одно правило — входной контроль — измерение температуры. И, наконец, дома тоже используйте дезинфицирующие средства, ведь возбудитель инфекции какое-то время остается на поверхности. Пожалуйста, наберитесь терпения и берегите себя, — обратилась руководитель управления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Фунтусова.

На брифинге также напомнили правила въезда на территорию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Для граждан без сахалинской регистрации правила остаются прежними: требуется заранее оформить цифровой пропуск на сайте: fr.sakhalin.gov.ru и предъявить справку об отсутств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На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ти правила не распространяются.

Сотни гостей и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посетили ярмарку «Золотая осень Сахалина – 2020»

Масштаб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развернулось 4 октябр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у Дома торговли. Свою продукцию здесь представили более 150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практически со всей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ации также участвовали в тематических конкурсах и прове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рукоделию. С праздником урожая собравшихся поздрав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оторый лично оценил островную продукцию.

— Ярмарка приносит людям неподдельную радость. И это здорово. У сахалинцев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закупиться нашей свежей и доступной продукцией впрок. Кстати, год выдался довольно дождливым. Однако урожайность этого сезона вы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Для нас очень важна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ая независимость, поскольку привозные товары существенно дороже местных.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мы продолжим развивать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и фирменную торговлю, — рас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праздника — крестьянские и личные подсобные хозяйства, садоводы, огородники, предприятия пищевой и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а также компании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Они представили широкий ассортимент продукции. На витринах — рыба, мясо, колбасные и кондитерские изделия, овощи и мед. Цены — от производителя. К примеру, кило фермерского разубра свинины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всего за 240 рублей, а килограмм ребер — за 335.

— Я обожаю ярмарки. Причем дело даже не в экономике. Здесь собраны все наши производители и это позволяет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новыми товарами буквально на одной площадке. Это удобно. К тому же, многие продавцы предлагают продегустировать свою продукцию бесплатно. Я вот сало купила — ем с утра, чтобы были силы на весь день, — отметила жительница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Мария Михальчик.

Традиционно на ярмарке фермеры, садоводы и огородники предлагают картофель, саженцы ягодных ку-

старников и плодовых деревьев, а также сопутствующие товары — минеральные и органическими удобрения, садовый инвентарь. Здесь также можно купить молодняк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животных и птицы.

А совхоз «Тепличный» организовал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рукоделию. К примеру, в палатке можно было научиться изготавливать тряпичную куклу капустку. Ученикам предоставили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для этого материалы — ткань, нити и инструменты. На изготовление куклы в среднем уходит 30 минут.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ярмарки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готовил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конкурс, победители которого были определены в 12 номинациях.

Среди лучших — совхоз «Тепличный» (Ярмарочный стандарт, Зеленый Сахалин),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й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й кооператив «Соколовский» (Оригинальное торговое место), птицефабрика «Островная» (Самое бойкое место), продавец совхоза «Заречное» Ирина Сироткина (Самый обаятельный продавец), торговая фирма «Сахалинский бекон-2» (Ремесленная слобода), совхо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Чудеса на грядке), сахалинская мяс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ая фабрика «Золотой теленок» (За новаторство в организации сельского труда, ВкусноСАЛО), ООО «Фантазия» (Лакомка), островитянка Ольга Овчарук (Овощ Великан), а также станция по борьбе с болезнями животных №2, которая представила курицу редких пород (Птичий микс).

В рамках областной ярмарки также проходил межмуниципальный конкурс «Красота родного края». Первое место в нем занял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торое — Корсаковский район, а третье — Долинский.

Также для собравшихся на сцене выступили островные танцевальные и вокальные коллективы. В зоне фуд-корта от ведущих сахалинских предприятий общепита горожане попробовали блюда, приготовленные островными поварами. К примеру, всех желающих угостили картофелем с салом и зеленью.

На Сахалине стартовал V чемпионат п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мастерству «Абилимпикс»

В этом году в нем участвуют более 200 человек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Свои навыки и мастерство они продемонстрируют в 22 компетенциях. Соревнования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одновременно на нескольких площадках, расположенных 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Сахали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чемпионата состоялось в конгресс-холле «Столица». Участников, среди которых в этом году 93 школьника и 52 студента,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Владимир Ющук.

— Чемпионат — это, конечно, соревнования на выявление лучшего. Но вы все уже победители. Ваша сила духа и стремление к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у являются хорошим примером и мощным мотиватором для окружающих. А мы обещаем продолжать создавать достой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людей с особен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чтобы не было никаких преград для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в том числ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 отметил Владимир Ющук.

«Абилимпикс» — одно из мероприятий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в рамках платформы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который направлен на повышение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ыпускников и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или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на региональном рынке труда.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дней участники будут показывать мастерство в различных ремеслах: столярное и гончарное дело, вязание спицами, бисероплетение, вышивание, а такж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навыки маляра, портного, повара. Работу конкурсантов оценят 103 эксперта.

Имена призеров и победителей рег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назовут 9 октября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закрытия и награждения. По итога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конкурса «Абилимпикс» будет сформирована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участия в финал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мероприятию, люди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могут проявить себя в разных сфер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казать силу воли и талант. Это площадка для общения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ов, новых знакомств,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оста. В этом году у нас впервые 10 ребят из детских дошко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покажут мастер-класс на Бэби-Абилимпиксе, — рассказ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Абилимпикс» Светлана Кашкина. Кроме того,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я запланирована выставка творческих работ людей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и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а также деловая программа,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пройдёт Всероссийска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Образование лиц с ОВЗ в системе СПО: проблемы, опыт перспективы».

Напомни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к движению «Абилимпикс» в 2016 году. За это время расширилась география конкурса, увеличилось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растет уровень их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а. В 2019 году по итога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топ-20 регионов в медальном зачете, заняв 18 место.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Чего достигли Россия и Южная Корея за 30 лет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5-ой странице)

Россия и Южная Корея разделяют многие принципы, согласно которым должна развиваться ситуац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корейская нация в итоге должна быть единой, полуостров должен быть свободен от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а все проблемы и споры надо решать исключительн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 путем, без применения оружия.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стало заметно сближение позиций Москвы и Сеула п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проблематике. РФ и РК поддерживают трехсторонн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участием Юга, Севера Кореи и России.

Извечный "огромный потенциал для развития"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нельзя сказать, что всё так уж гладко и есть только успехи. Практически на каждой встрече лидеры наших стран вспоминают про "огромный потенциал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о, к сожалению, этот оборот уже набил оскомину и повторяется постоянно, а количество подписанных "деклараций о намерениях" и "меморандумов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в десятки раз превышает реальные договоры и контракты.

То же трехсторонн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формате РК-КНДР-РФ, включа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един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прокладку газопровода и линии электропередач, пока остаётся лишь "планами на будущее".

Временами позиция Москвы серьезно расходилась с точкой зрения Сеула по поводу того, как надо вести себя с КНДР. Если при нынешнем президенте РК Мун Чжэ Ине Россия и Южная Корея, как правило, не спорят, то при некоторых предыдущих лидерах Юг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векторы политики РФ и РК периодически вступали в противоречие.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безусловно главный партнер и союзник - это США. В Корею размещены американские войска. А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вольно или невольно Сеул в целом следует в фарватере политики Вашингтона, что отражается отношениях с Россией. Высказывание: "Мы-

то не против, но, скорее всего, США не согласятся на это и не позволят нам" — часто слышат российские политики и бизнесмены от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ллег, когда предлагают последним те или иные проекты дл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Тот же товарооборот — да, сейчас он исчисляется миллиардами долларов. По итогам 2019 года торговля между РФ и РК составила 24,4 млрд долларов. Но с учетом размеров экономики наших стран — это скромный результат для трех десятков ле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о внешнеторговом балансе РФ доля Южной Кореи составляет лишь 3,6 %, Южная Корея — на 8-м месте в списке торговых партнеров РФ. А Россия — на 10-11-м для Кореи. На долю России приходится не более 1-2 процентов всего товарооборота РК. То есть, мы знаем друг о друге, сотрудничаем, но "огромный потенциал"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о многом остаётся именно потенциалом, который не реализован.

Вузы России выпускают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корееведов, курс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ользуются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у российской молодежи, но в итоге из выпускников остаются работать на корей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 лучшем случае десятая часть.

Точно также очень непредсказуемо разбрасывает жизнь корейцев, у кого в дипломе написано "русский язык и литература". К сожалению, пока предложение по части специалистов превышает спрос.

Для большинства корейцев знания о России остаются на уровне лишь ярких символов типа "матрешка-водка-балалайка", тогда как не хватает понимания особенностей нашей ситуации и истории. Стереотипы восприятия корейцев часто копируют клише западных СМИ.

Впрочем, и от россиян можно услышать вопрос, адресованный корейцам, от которого они морщатся: "Вы правда постоянно едите собак?" (Ответ: да, некоторые корейцы до сих пор едят, но куда меньше, чем раньше, и эта традиция стремительно уходит в историю) А сама Ко-

рея для многих жителей РФ - лишь страна Samsung, LG, Hyundai и музыки K-POP, а когда попытаешься спросить: "А что еще ты знаешь про Корею?", — то многие не могут ничего добавить.

Это отнюдь не попытки найти виновных и кому-то "предъявить счет" за нереализованный потенциал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а лишь стремление показать объективную ситуацию и постараться понять, куда следует двигаться.

К счастью, с каждым годом Россия и Корея становятся ближе друг к другу. Растет количество смешанных браков, все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людей, кто владеет русским и корейским одновременно на уровне родного.

Насколько могу судить по личному опыту, россияне и корейцы весьма легко сходятся друг с другом. В наших странах есть значите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энтузиастов, экспертов, которые ратуют и делают все возможное для развит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роме того, Корею и России есть чему поучиться друг у друга — в науке, экономике, торговле, дипломатии и многом другом.

В целом, мы — Россия и Корея — движемся, наверное, в правиль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Мы узнаем друг друга с каждым днём лучше и лучше, понимая друг друга со всеми достоинствами и недостатками, а именно это — залог успешных связей. Мы вместе прошли за эти три десятка лет дипотношений, пусть порой и с зигзагами, но большой и важный путь, сумев сделать многое.

Хочется надеяться, что это сближение наших народов пойдет еще быстрее, а когда мы будем отмечать следующий юбилей, то сможем сказать, что "огромный двусторонний потенциал" превратился в конкретные успешные проекты, достижения, контракты и внушительные показатели товарооборот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30 сентября 2020 г.)



Россия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30 лет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한-러 수교30주년기념’

Международны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ий семинар
«Поиск новых методов и технологий об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как иностранному
в Четвертую индустриальную эпоху»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할린 한국어 교육 방안 모색 워크숍

Дата проведения: 10 октября 2020 г. 10:00–16:00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 33 (малый зал)

Организаторы: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кафедра
восточной филологии при поддержке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В программе семинара доклады ведущих экспертов в области методики
преподавания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한-러 수교30주년기념’ 한국어말하기 대회

• 일시 : 2020년10월 9일, 10:00
• 장소 : сахалин 국립대학 소강당 (코무니스티체스키 거리, 33 번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회 참가자 및 관계자만 입장 가능
• 주최 : 주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사할린한국교육원), 사할린주정부(교육부)
• 주관 : сахалин 국립대학교 한국어과
• 참여대상 :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할린 주민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주제 및 요약본 첨부) 9.30.까지 최종 원고 제출

* 사할린 출장소 (sakhalin@mofa.go.kr)

• 참가부문

구분	대상
학생부	한국어를 배우는 초/중/고/대학교 재학생
일반부	학생을 제외한 모든 일반인

• 참가주제(3가지중 택일)

1. 내가 아는 한국
2. 한국-러시아 문화 소개(비교)
3. 한국과 러시아(사할린) 간 협력 방안

구분	학생부		일반부
	초급	중고급	
1등(각 1명)	상품과 상품권 (15 000 루블)	상품과 상품권 (20 000 루블)	상품과 상품권 (30 000 루블)
2등(각 1명)	상품과 상품권 (6 000 루블)	상품과 상품권 (15 000 루블)	상품과 상품권 (20 000 루블)
3등(각 1명)	상품과 상품권 (4 000 루블)	상품과 상품권 (5 000 루블)	상품과 상품권 (15 000 루블)
장려상(각 2명)	상품과 상품권 (3 000 루블)	상품과 상품권 (3 000 루블)	상품과 상품권 (6 000 루블)
인기상(각 1명)	상품권 (3 000 루블)	상품권 (3 000 루블)	상품권 (3 000 루블)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또한 사이트의 "선생님"섹션에는 가이드라인,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시각 자료, 운동 기술 개발을 위한 특별 강의 및 기타 많은 유용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Сахалинские пенсионеры опробовали новый курс программы «Азбука интернета»

Новый курс «Интернет для отдыха и путешествий: тонкости и полезные советы» стал еще одним разделом программы «Азбука интернета», который доступен для изучения сахалинским и курильским пенсионерам.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пенсионного фонда России.

С помощью курса островитяне, желающие отправиться на отдых, могут узнать о наиболее удобных и популярных способах покупки железнодорожных и авиабилетов через интернет, научиться грамотно и безопасно бронировать отель, а также билеты на экскурсию, в театр или музей в незнакомом городе.

Учебный модуль является комплектом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которые легко освоит пользователь старшего возраста, уже имеющие базовые навыки работы на компьютер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учение граждан компьютерной грамотности проводят не один десяток лет. Например, в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такие курсы реализуются с 1993 года, а с 2015

года обучение пожилых сахалинцев проходит по методике «Азбука интернета».

Для тех, кто желае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освоить курс «Азбука интернета» либо закрепить полученный навык, работает специальный сайт. Здесь размещены: электронная версия базового учебника, все модули расширенного курса, полный комплект материалов, которые помогут пользователям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усвоить новые темы. Кроме того, раздел сайта «Преподавателю» содержит методические рекомендации, презентации, наглядные материалы к главам курса, описание специальных упражнений для развития моторики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полезные материалы.

러시아인 절반, 직업 변경 희망해

40% 이상의 러시아인들이 직업을 바꾸기를 원하며, 10%는 이미 직업을 바꾸기 위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 내용은 '타스'통신이 갖고 있는 '라이프파이젠뱅크'의 조사 데이터를 통해 밝혀졌다.

응답자 중 3분의 1은 무역, 건설, 수리, 물품 생산, 교육 등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자기 직업을 편집자나 작가, 기업가, 연구가로 바꾸고 싶어한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후 회계 부서나 인사 부서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경우는 훨씬 적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 러시아인 5명중 1명은 추가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 응답자 대다수가 경장 소득과 저축으로 교육비를 내며 대출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러시아인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중요한 부분은 높은 연봉과 원격근무 가능성 여부이다.

해당 조사는 9월 하반기에 실시되었다. 천 명 이상의 러시아인들이 조사에 참여했다.

Почти половина россиян хочет сменить профессию

Более 40 % россиян хочет сменить свою профессию, еще 10 % уже начали этим заниматься. Об этом говорят данные опроса «Райффайзенбанка», результаты которого есть в распоряжении ТАСС.

Треть из опрошенных занята в таких отраслях, как торговл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ремонт, производство товаров и образование. При этом чаще всего профессию хотят сменить на редактора или автора текстов,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 и data scientist. Значительно реже респонденты после получения новых знаний хотят работать в бухгалтерии или HR-департаменте.

Для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каждый пятый россиянин хотел бы получ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При этом большинство опрошенных оплачивает обучение из текущих доходов и накоплений, а к заемным средствам обращаются довольно редко.

Ключевыми факторами при выборе профессии для россиян являются высокая зарплата и возможность работать удаленно.

Опрос был проведен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сентября. В нем участвовали более тысячи россиян.

(사할린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에서)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
---	---	--	---	--	--